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on Delinquency

김태량, 김경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ae-Ryang Kim(sinkb0@hanmail.net), Gyeong-Hwa Kim(khkim@c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Sobel Test를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스트레스는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행의 예방과 개입에 관한 방안들에 관해 논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청소년 |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비행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delinquency. For this study, a survey with 56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as carried out, and using the data colle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ess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delinquency. Second, stress had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Third, self-esteem had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delinquency. This shows that a high level of stress among adolescents led to an increase in delinquency. Also, a high level of stress perceived by adolescents negatively influenced self-esteem, a low level of self-esteem is related to an increase in delinquency, and self-estee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methods of introducing a mental health program for reducing adolescent stress and improving self-esteem and of preventing and intervening in delinquency.

■ keyword : | Adolescent | Stress | Self-Esteem | Delinquency |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와 비행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오래된 사회문제이며 학업성취나 대인관계와 같은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의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형태는 저연령화, 누범화, 양적증가, 난폭화, 흉포화를 보이고 있어 교육현장과 사회에서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범죄비행과 비교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비행문제는 그 자체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고 이러한 비행이 그대로 방치되면 청소년들은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성인의 사회부적응과 같은 범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2].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성인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청소년기에 비행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기 비행의 심각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3]. 이처럼 청소년 비행문제는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비행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역할의 변화로 인해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시기로 다른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과 성공적으로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위의 기대와 요구에 미처 대처할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4].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심리적 적응에 관한 방어기제의 발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공격적 행동이나 우울,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양상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시험지옥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와 증가하고 있는 가족체제 및 학교에서 일어

나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5]. 청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문제나 교사문제, 학업성취문제와 같이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좌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비행을 하게 된다[6]. 이와 같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은 그들의 문제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나 비행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알아보는 일은 중요하다.

청소년 비행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는 접근이 설득력을 지닌다[7].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비행에 관한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7][8]. 특히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개인 심리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9], 개인의 사고나 태도 속에서 표현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0].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확신과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이나 잠재적인 지도력이 있으며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자극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과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적인 기술과 같은 특성이 높아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11].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위가 자신의 삶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비행, 자살, 우울, 약물남용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12-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유발하는 변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15-17]. 하지만 모든 청소년

들이 과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행에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에 있어 매우 의미있고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의 유발상황을 스스로 평가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스트레스 대처 기제의 사용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표출되는 문제행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이 되어[1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매개변인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19].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 다양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이 어떤 심리적 변화과정 속에서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특성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환경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자신의 가치와 성장을 도와주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 적응의 정도는 우울, 약물남용, 자살,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행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17] 이들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에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규명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과 개입방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비행

최근 청소년 비행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청소년에게 국한된 문제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Cohen[20]은 청소년 비행을 사회체계 안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공유되고 있는 사회규범이나 다양한 제도적 기대들을 위반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Shoemaker[21]는 청소년 비행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법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포괄하여 규정하였다. Siegel과 Welsh[22]는 청소년 비행을 비행과 지위비행으로 분류하고 지위비행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금지된 행동으로 정의하여 비행과 지위비행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사회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된 행동이라 하고 이러한 일탈행동들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사용된다[23].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중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들을 포함하여 절도, 폭력, 약물이용, 음주, 흡연, 가출, 성행위, 불량친구와의 접촉, 유해한 장소 출입 등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사회규범과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범죄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24]. 때문에 청소년 비행은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와 미성년자로서 지켜야하는 가벼운 일탈행동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그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한다. 먼저 청소년의 비행을 중한 비행, 경한 비행, 지위 비행의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중한 비행은 청소년이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속하는 살인, 절도, 폭행, 협박, 강탈, 본드나 가스흡입,

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분류되고 경한 비행은 사소한 절도와 폭행 등 기타 형법의 위반행위로 중한 비행보다 발생빈도가 높다. 지위 비행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사용 등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행동들을 말한다[25]. 또한 청소년 비행의 장소를 학교로 규정하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행 행동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교에서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하는 지위비행, 학업에서 나타나는 무기력이나 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등을 의미하는 학업비행,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하는 일체의 반항적 비행,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이나 강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폭력비행, 이성에 대해 강제추행이나 강간, 신체노출 등의 성과 관련되는 성비행 등으로 청소년 비행을 구분한다[26]. 이 외에도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신경증과 정신병적 비행, 사회적 규범적 일탈, 약물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23]. 한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로 구분된다. 특히 개인 지향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개인의 내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결정이론과 함께 비행은 개인의 성격문제로 다루어 성격에 대한 반응이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제시하고 있다[13]. 반면에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환경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신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있으며 사회·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나 안정적인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가정적인 요인, 친밀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와 같은 학교 생활요인과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시대와 학자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Lazarus와 Folkman[28]은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환경적 사건도 개인의 지각과 평가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자극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하는 특정한 관계들로 정의하고 있다. Mason[29]은 스트레스를 관점에 따라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구분하고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개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된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초기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로 생물학이나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스트레스를 개인의 생리적, 신체적, 행동적 평형상태의 붕괴나 변화에 대해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반응으로 정의한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복잡한 관계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심리과정에 근거를 두어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반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여러 변인들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험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생존과 안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30].

오늘날 청소년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기간으로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과정에 적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생활사건에서도 경험하고 있지만 때로는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몇 가지의 자극이 동시에 발생하기도하고 때로는 하나의 스트레스로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단순하게 발생하는 생활사건보다는 더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3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크게 자신의 외모, 성격,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32]과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형편,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같은 가정적인 요인[33], 학업문제, 진로문제, 친구문제, 교사문제 등과 같은 학교적응 요인으로 분류되고[34]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행동적응에 대한 위험요소로 구분하고 청소년 비행의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스트레스가 청소년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정서적 불안이 높고, 인지적으로 취약하고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성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35]. 특히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긴장을 유발하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동반하면서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거나 비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되고 있다[37]. 즉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원만하지 않은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학교생활과 같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직접적인 스트레스는 사회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져 청소년 비행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38]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스스로를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아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의 정도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롭다고 느끼고 있는가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Coopersmith[39]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을 인정하거

나 부정하는 태도이며 자신은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주변에서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혜정, 황혜정[12]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아개념의 일부분으로 자아개념의 정도는 개인이 가지는 자아에 대한 다양한 신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Felker[40]는 자아존중감을 능력감, 소속감, 가치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능력감은 자신이 성취해야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고 소속감은 상호일체감을 가지고 사회집단에 소속되길 원하는 것이며 가치감은 개인이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가와 함께 또래나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정의하고 세 가지 영역 중 어느 영역이라도 발달이 지연된다면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결손이 발생한다. Maslow[41]는 자아존중감을 외적인 자아존중감과 내적인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고 외적인 자아존중감은 타인이 나를 소중하고 의미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 존경, 명성, 평판, 위신, 사회적인 성공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면에 내적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적으로 자신이 가치있고 적절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얻어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에서 낭패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어느 생애주기보다도 이 시기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38]. 특히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에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당당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도전하여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감을 가진다[42]. 또한 매사에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주위의 유혹이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기대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된다[43]. 반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청소년

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강하며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도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심이 크다[44].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 괴롭힘, 폭력, 약물남용, 비행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43].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평가하고 변화시키려는 능동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여 기출, 약물남용, 비행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45]. 따라서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 기제를 사용하여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비행의 관계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별, 연령, 경제수준, 학업성적, 가족구조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6][46].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령이 높고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양상이 여자청소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6][47]. 이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비행을 남자다운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있으며 여자 청소년들은 내재화된 전통적인 성역할의 규범으로 비행행동을 억제한다는 것이다[48]. 또한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으며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25][47] 최근의 연구에서는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비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에서는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의 성취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경험한다[37].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위기는 적절한 긴장의 수준을 이탈하여 부정적인 자아 성향을 유도하면서 비행행동으로 표출된다. Self-Brown과 그의 동료들[49]은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스트레스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이 스트레스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정서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청소년 스트레스와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취문제, 외모지상주의, 경제적 문제[6][32] 등으로 나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항상 경험하면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로부터 회피할 목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였다[15][17][50]. 또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인 경우에는 청소년 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공격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한편 치열한 입시경쟁과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기대는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하여 청소년 비행을 더욱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4][24].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은 준거집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친구관계에서의 동조성은 친한 친구에 대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이때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적응상의 문제로 이어져 위험행동을 가속화하면서 비행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52]. 학교생활에서는 진학이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반사회적 행동이 표출된다[1]. 이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는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으로 교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잠재적 비행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행동과 함께 탈비행을 유도하는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53].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14-16].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부적응과 연결되어 개인의 사고나 태도에서 표현되는 가치판단 기준이 되는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청소년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겠다고 인지할 때에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는다[39]. 또한 청소년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최대화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54].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감과 인내력이 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의 대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일관성이 낮으며 자신에 대한 분명하지 못한 가치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되지 못한 정서로 인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한다[55].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행, 가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유발한다[48][54]. 반면에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유발 상황을 인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변화시키려는 능동적인 문제해결 대처 방법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가출, 약물남용, 성관계,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17][45].

한편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업에 대한 성공경험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48]. 높

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가치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여 낮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낮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여[14][16][56][57]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비행과 부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3][5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는 그들의 발달에 있어 지지체계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관계, 학업문제,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개인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비행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이 능동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여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변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기제인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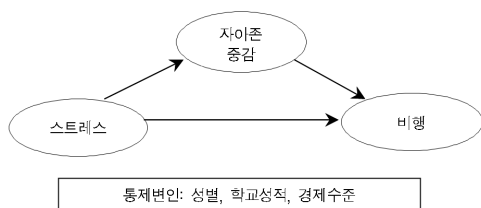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대구시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확률표집방법인 임의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5주간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연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선생님과 보조 조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 자기기입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응답한 600명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565부가 최종 유효 표본으로 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3.1 비행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원[58]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위해 사용한 질문지의 비행척도를 사용하였다. 비행은 총 10문항으로 조사대상자가 음주, 흡연, 절도, 강탈, 폭행,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사용, 도박, 공공기물 파손 등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없음’1점, ‘1~2번’2점, ‘3~4번’3점, ‘5번 이상’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 계수는 .774로 나타났다.

3.2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28]이 개발하고 김준호, 이동원[59]이 제작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척도를 임은미, 정성식[60]이 요인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4개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의 지각을 기입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이며 외모 및 물질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의 4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a 계수는 .92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 계수는 .927로 나타났다.

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38]가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존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개인 자존감 척도를 이훈진, 원호택[61]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 5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5문항을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로 평정하는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채점방법은 부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a 계수는 .890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 계수는 .900으로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된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6]. 성별의 경우에는 ‘여자=0’, ‘남자=1’로 더미코딩을 하여 분석하였고 학교성적과 경제수준은 모두 ‘하’, ‘중하’, ‘중’, ‘중상’, ‘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되어 있는 변수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고 주요변수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비행 간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넷째,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62]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통제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성별, 학년, 학교 성적, 경제수준으로 구분하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80	49.6
	여자	285	50.4
학년	중학교 1학년	105	18.6
	중학교 2학년	90	15.9
	중학교 3학년	86	15.2
	고등학교 1학년	137	24.2
	고등학교 2학년	147	26.0
학교 성적	하	44	7.8
	중하	126	22.3
	중	202	35.8
	중상	150	26.5
경제 수준	상	43	7.6
	하	8	1.4
	중하	63	11.2
	중	325	57.5
	중상	134	23.7
	상	35	6.2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280명(49.6%), 여자 285명(50.4%)으로 전체 분석대상자는 565명이다. 학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147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학년 137명(24.2%), 중학교 1학년 105명

(18.6%), 중학교 2학년 90명(15.9%), 중학교 3학년 86명(15.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성적은 중 202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상 150명(26.5%), 중하 126명(22.3%), 하 44명(7.8%), 상 43명(7.6%)의 순으로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 325명(57.5%), 중상 134명(23.7%), 중하 63명(11.2%), 상 35명(6.2%), 하 8명(1.4%)의 순서로 보였다.

2.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중앙값에 대비하여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스트레스(M=2.19)는 중앙값 3점보다 낮아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조금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M=3.47)은 중앙값 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다소 좋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속변수인 비행(M=1.22)은 중앙값 2.5점보다 낮아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비행행동을 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

주요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스트레스	565	2.19	.77	1.00	4.88
자존감	565	3.47	.76	1.00	5.00
비행	565	1.22	.33	1.00	3.40

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은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552 이상에서 .354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절댓값이 .80이상인 변인들이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성별, 학교성적, 경제수준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비행($r = .156, p < .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으면 비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r =$

-0.552, $p < .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비행($r = -0.124$, $p < .01$)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어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1)성별	1					
(2)학교 성적	.118**	1				
(3)경제 수준	.278***	.263***	1			
(4)스트레스	-.230***	-.180***	-.125**	1		
(5)자아 존중감	.245***	.354***	.231***	-.552***	1	
(6)비행	.303***	.005	.035	.156***	-.124**	1

* $p < .05$, ** $p < .01$,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4.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F검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모형은 회귀모형으로서의 기준치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은 분포를 이루고 있어 주요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효과 검증방법은 Baron과 Kenny[62]가 제시한 방식을 따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력과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이때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력이 유의하여야 하고 동시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그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B	β	R ²	F	
1단계 (독립 → 종속)	성별	.241	.368***	.147	24,167***
	학업성적	.005	.015		
	경제수준	-.017	-.041		
2단계 (독립 → 매개)	성별	.125	.083*	.388	88,818***
	학업성적	.170	.236***		
	경제수준	.084	.08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성별	.248	.378***	.157	20,886***
	학업성적	.014	.045		
	경제수준	-.013	-.030		
	스트레스	.075	.176***		
	자존감	-.056	-.129*		

* $p < .05$, ** $p < .01$, *** $p < .001$

이에 Baron과 Kenny[62]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먼저 투입을 한 다음 스트레스는 독립변수로, 비행은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beta = .368$, $p < .001$)만이 청소년의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23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명력은 14.7%($F = 24.167$, $p < .00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 비행의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beta = .083$, $p < .05$), 학업성적($\beta = .236$, $p < .001$), 경제수준($\beta = .086$, $p < .05$) 모두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479$, $p < .0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명력은 38.8%($F=88.818$, $p < .00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도 하 집단에서 상 집단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비행에 동시에 투입하고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beta=.378$, $p < .001$)만이 청소년의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76$, $p < .001$)을 미치고 있으며 설명력은 15.7%($F=20.886$, $p < .001$)로 1단계보다 증가하였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29$, $p < .0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비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비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beta=.238$, $p < .001$)보다 3단계($\beta=.176$, $p < .001$)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직접효과이고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접효과라고 말한다. 간접효과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와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비행으로 가는 경로는 $\beta=.238$ ($p < .001$), $SE=.017$ 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직접효과가 .238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가는 경로는 $\beta=-.479$ ($p < .001$), $SE=.034$ 이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가는 경로가 $\beta=-.129$ ($p < .05$), $SE=.021$ 이므로 간접효과는 .062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300이 되며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예측변인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 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와 자아존중감에서 비행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Z값은 2.619($p < .01$)로 나타나고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b (S.E)	Sobel-Z Score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472(.034)	2.619**
자아존중감→비행	-.056(.021)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행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학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와 진로문제에 의해 높은 긴장과 불안이 발생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과[6][17][50]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비행을 유발하는 변인이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는 비행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유발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과[48][54][55]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기간으로 그들이 성공적으로 발달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도전적인 태도와 함께 성취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비행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가족이나 학교생활에서 주요한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자주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일이 적으며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출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이 유발된다고 하는 연구들과[14][48]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

면 자아존중감이 감소하여 자아의 가치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 과정 속에서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 부적응 문제로 이어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서 자신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방해를 받아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이 생활사건의 압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개입이 강조된다. 청소년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정서적 불안의 정도와 인지적 성숙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양상은 다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멘토와 같은 제도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지속적인 부모-자녀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신뢰감을 형성해주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개별화된 스트레스 대처 훈련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도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역할 변화와 함께 경쟁 과정에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스트레스의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자

신의 능력과 신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학급분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과정과 친구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민주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나 가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40]. 최근에 청소년은 입시위주의 학교생활과 가족해체로 인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 체계가 약화되면서 자신에 대해 분명하지 못한 가치판단 기준을 가지고 안정되지 못한 심리적 정서로 인해 비행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한다[13].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개인의 내적 심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가족이나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환경 내에서 충분히 지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지체계의 마련이 강조된다. 또한 청소년복지실천현장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찾아가는 훈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협력의 중요성과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인관계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성장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서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건강성증진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개입 방안과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개인의 심리적인 성향과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 방안의 마련이

강조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강조된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방임하지 않고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부적응은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방과 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육현장에 더 많이 배치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진단하여 상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비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탐색을 통해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축제나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관계있는 직업 박람회 등과 같은 청소년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여 제공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매체와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법의 규정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한해서만 실질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의 일탈행동인 지위비행이나 경한비행의 개입과 관련된 보호프로그램들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지원센터나 관련 단체에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일탈행동인 비행에도 개입할 수 있는 보호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 그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변인들 간에 새로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청

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시간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종단연구의 검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우채영, 정현희,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 연구, 제20권, 제6호, pp.147-168, 2013.

[2] A. Kazdin, D. Bass, T. Sigel, and C. Thomas,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nd relationshi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referred for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7, No.4, pp.522-535, 1989.

[3] 강은영, 박형민, 박현수, 조소연,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2008권, 제12호, pp.1-545, 2008.

[4] D. Elkind, *The hurried child*, Management agency & Music publishing Inc, 1984.

[5] 임은희, 남현주,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3호, pp.23-48, 2008.

[6] 강혜자, “비행청소년의 비행촉발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3권, pp.221-239, 2011.

[7] 이성대, 염동문, 김서정,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pp.55-75, 2013.

[8] 민수홍,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24-47, 2006.

[9] M. Carr and T. Vandive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Youth Offenders,” *Adolescence*,

Vol.36, No.143, pp.409-426, 2001.

[10] 정미경,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외면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1호, pp.271-290, 2012.

[11] M. Rosenberg, *Conceiving these lf*, New York: Basic Books, 1979.

[12] 백혜정, 황혜정,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9권, 제3호, pp.1-27, 2006.

[13] 박현수, 김도우, 이재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제6권, 제1호, pp.59-92, 2010.

[14] 최인재,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pp.219-243, 2014.

[15] 오승환,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학교사회복지, 제16권, pp.53-73, 2009.

[16] 이창식, 박미자, 장은순, “조손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20, 2010.

[17] 권은영, 정현희,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6호, pp.29-54, 2011.

[18] 신정이, 황혜원,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 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호, pp.123-154, 2006.

[19] R. Jessor and S. L. jessor,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tudinal study of New York Academic Press, 1997.

[20] A. Cohen,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Chicago: Free Press, 1955.

[21] D. J. Shoemaker,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 Behavior: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9.
- [22] L. J. Siegel and B. C. Welsh,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11.
- [23] 이석형,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4]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41권, pp.101-123, 2013.
- [25] 진혜민, 배성우, “청소년 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2호, pp.193-221, 2012.
- [26] 김선남,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7] 윤옥경,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연구*, 제38권, pp.107-138, 2008.
- [28]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McGraw Hill, 1984.
- [29] J. W. Mason, “A historical view of the stress field: part 1-2,” *Journal of Human Stress*, Vol.1, pp.6-36, 1975.
- [30] H. Selye,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Co, 1985.
- [31] A. D. Kanner, J. C. Coyne, and R. S. Lazarus, “Comparisi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4, 1981.
- [32] 천민필,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33] 손정희,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34] 노미숙,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5]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9권, 제1호, pp.1-19, 1990.
- [36] 신현숙, “남녀 청소년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우울, 자극추구성향,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2호, pp.191-215, 2013.
- [37] 강승호, 문은식, 차미영,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제25권, 제2호, pp.277-293, 2011.
- [38]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9]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 1967.
- [40] D. W. Felker, *Building positive self-concent*, Minneapolis, Minn: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4.
- [41] A. H. Maslow, *Toward a psychology of being(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68.
- [42] R. W. Reasoner, *Building self esteem: Parents guide and teachers guide*,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2.
- [43] 이미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변인들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63-293, 2005.
- [44] 남영자, 박태영,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4호, pp.47-71, 2009.
- [45]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양식 및 문제행동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pp.385-402, 2004.
- [46] 김희영, 조미경, “무단결석과 애착유형이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7권, 제2호, pp.90-99, 2014.

[47]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10호, pp.91-102, 2005.

[48] 정익중,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발달체적과 예측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127-166, 2007.

[49] S. Self-Brown, M. LeBlanc, and M. L. Kelley, “Effects of violence exposure and daily stressors on psychological outcomes in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7, pp.519-527, 2004.

[50] 최정아,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과 우울의 상호 인과관계: 자귀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 pp.143-169, 2010.

[51] 송순, 오선영,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및 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제8권, 제1호, pp.93-103, 2014.

[52] 윤혜미, 남영옥,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제23권, pp.127-152, 2007.

[53] 전선영, 문성호, “청소년의 탈비행의 유형 및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2호, pp.395-415, 2013.

[54] R. G. Simmons and F. Rosenberg, “Sex, Sex roles and self-im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 pp.229-258, 1975.

[55] 백중환,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간 관계 분석*,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6] 김소영,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서적,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다집단 분석을 통한 성별 차이 탐색,” 청소년문화포럼, 제35권, pp.92-113, 2013.

[57] C. Ames, “Classrooms: Goals, structure,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4, pp.261-271, 1992.

[5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2013.

[59] 김준호, 이동원, *청소년 긴장과 비행*,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6.

[60] 임은미, 정성식,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3호, pp.99-121, 2009.

[61] 이훈진, 원호택, “자기개발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제4권, 제2호, pp.15-30, 1995.

[62]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1173, 1986.

저 자 소개

김 태 량(Tae-Ryang Kim)

정회원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 2017년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김 경 화(Kyong-Hwa Kim)

정회원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94년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관심분야> :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정책